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아동학대 감소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황준수*, 임종윤*, 권순영*, 노규성*, 이주연**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Exploratory Study on Child Abuse Reduction Plan through the Big Data Convergence Analysis

Jun-Soo Hwang, Jong-Yun Lim, Sun-young Gwon, Kyoo-Sung Noh*, Joo-Yeoun Lee**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moon University*
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Ajou University**

요 약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내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 통계 데이터 포털에 의하면, 19세 이하의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이후의 상담건수는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이다.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관련 연구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감소방안을 제안하였다. 가설 검정 결과 학대 행위자의 특성, 아동 특성이 아동학대의 영향, 근로형태가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교육 및 경제적 지원 대책 등 아동학대 감소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빅데이터,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 피해아동 특성, 근로형태, 가족구성원간 만족도

Abstract Recently the problem of child abuses has become a big social issue. According to national statistics data portal, the population under 19 years old is shrinking trend, but the number of child abuse is increasing day ever. However, the number of counseling after calling is a constant level without large fluctuations.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s, child abuse is even worse despite the research and countermeasures. This study designed a study model on the child abuse based on a preliminary study and suggested plans for reducing child abuse through the big data analytics. When we see a result of test of the hypothesis, abuse actor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employment type were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hild abuse. Based on such analysis, this research has suggested ways to reduce child abuse, including educational and economic support measures.

Key Words : Big Data, Child Abuse, Performer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Children Suffered Damage, Employee Type, Satisfaction among Family Members

Received 1 September 2016, Revised 1 October 2016
Accepted 20 October 2016, Published 28 Octo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Kyoo-Sung Noh (Sunmoon University)
Email: ksnoh114@gmail.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아동 복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계법령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아동학대를 엄격히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의하면,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2001~2010년은 평균 7명이었으나 2011~2014년은 연평균 1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19세 미만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아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및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앙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1]에 의하면, 학대행위자는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7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 12.2%. 대리양육자 중에서 보육교직원 3.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5% 순으로 나왔다. 학대 행위자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건수 비율을 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전체의 33.7%이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요인 19.0%, 부부 및 가족 갈등 10.9%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정책[2]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 대상자별 집중적 홍보 및 교육 강화, 학대피해아동 가족기능 강화 및 재학대 방지대책 추진, 아동학대 예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여러 가지 정책도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분석도 많다. 이선향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체계에 대해 사전적 관점¹⁾과 사후적 관점의 예방체계 중 사전적 예방체계는 단순한 지식전달과 인식전달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3]. 또 박한비는 강제적 조항이 없다는 문제점을, 문영희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각 법들이 서로 다르고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4,5].

또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경우 2014년 기준 33,843건이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는

9,404건으로 27.8%밖에 되지 않으며²⁾ 이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강제적이지 아니라 권고수준³⁾이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특례법 제정, 예방 교육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대책과 관련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가 시도하지 않은 빅데이터 기반의 현상 분석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관한 데이터 기반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감소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관련 가설을 설정한 다음,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가설을 검증하고 결과의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감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는 문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 및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 행위와 아이를 가만히 놔두는 방임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캠프(Kempe) 등은 아동학대를 부모나 양육자의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 우발적인 신체적 상처로 보았으며, 길(Gill)은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방임상태, 그리고 개인이나 제도, 사회의 행위나 태만으로 정의하였다[6]. 아동 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대 행위자 서비스/학대 피해아동 서비스의 평균은 22.3%로 역시 낮다.

3) 아동복지법 29조의2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사전적 관점은 학대 발생이전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줄이는 방식이고, 사후적 관점은 학대 발생이후 개입하는 방식이다.

한편 WHO는 아동학대 유형을 아동의 생존, 건강, 존엄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 금전적 착취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총 네 가지로 분류된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명백한 신체적 상해 또는 구타를 하거나 무리한 훈련을 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정서적 학대의 경우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사회성 향상에 손상을 줄 정도로 언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말한다.[7].

2.2 아동학대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박숙인[8]은 정신 병리적 관점(학대자의 심리, 성격장애 및 알코리즘, 약물남용으로 인하여 아동을 학대하는 관점), 발달론적 관점(아동 자신의 문제(정서장애, 비행행동 등)가 학대를 야기 시키는 관점), 사회 환경적인 관점(실직, 빈곤, 가정 환경적 특성, 사회문화적 환경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 원인을 구분하였다. 홍덕표[9]는 정신 병리적 관점, 발달론적 접근, 사회심리학적 접근 외에 생태학적 접근(정신 병리학적 접근, 발달론적 접근,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체계적으로 분석, 통합한 것)을 추가하였다. 최문상[10]은 정신 병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 사회심리학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외에 추가적으로 위험-회복력 관점[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관련 요인, 아동이 질병이나 문제들과 관련된 보호요인들에 저항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내적·외적인 요인,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을 고려하였다.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정신 병리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 사회 환경적인 관점이 공통적인 아동학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2.3 아동학대 해결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해결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로써 강창석[11]의 경우 사회 문화적 요인의 제거(빈곤의 제거, 실직율의 감소, 아동권리 존중과 이를 보장하는 법의 실행), 상담 및 교육, 공익광고 홍보, 아동학대 교과목 편성 등을 해결방안을 내놓았고, 박상주[12]는 신고 체계의 일원화, 신고의무 강제, 신고의무자 교육의 제도화,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 활성화를 해결 방안으로 보았다. 오진석[13]은 범 국민 홍보 및 계몽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피해아동 상

담서비스 등을 들었다. 박세희[14]는 아동 및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경제적 도움, 심리치료 도움],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협력관계 안전 연결망 구축[교육기관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등 다양한 체계와 협력],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아동학대 해결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피해아동 상담서비스,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홍보가 공통적으로 아동학대 개선방안으로 정리된다.

2.4 빅데이터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통한 융합분석을 기반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관련 연구도 조사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빅데이터 관련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 대상분야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근원 등[15]은 지하철 혼잡도 개선방안에 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노규성 등[16]은 기업 및 조직이 효과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빅데이터 직무능력 참조 모형을 제시하면서 네가지 직무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단위요소로 20개 지식과 15개 기술을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행정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17], SNS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대학 인식 및 선호도 분석[18] 등 다양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행 연구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아동학대 관련 연구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5 선행연구에 대한 시사점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아동학대 원인으로서 정신 병리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 사회 환경적인 관점으로 정리된다. 다만 이 원인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출이라기보다 연구자들의 이론적이고 논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해결 방안 또한 연구자들의 주관적 지각과 전문성을 근거로 제시되어 있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고 결과 값을 토대로 아동학대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목적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감소 방안을 찾는 것이므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나왔던 정신 병리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 사회 환경적인 관점의 방향으로 아동학대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많은 아동학대 관련 연구는 정신 병리적·발달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각각 부모·피해 아동의 특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주선희[19]의 연구에서와 같이 직업구성이 노동인 가정과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적은 가정이 상대적으로 아동학대를 더 하는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 역시 아동학대의 큰 원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학대행위자의 특성, 피해 아동의 특성, 고용형태, 가족 구성원 간의 만족도의 4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그런데 선행연구를 근거로 제시한 4가지 아동학대 원인 중 학대 행위자 특성과 피해아동의 특성은 내적으로 수많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어 모든 요소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인과관계 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 변수를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 특성과 피해아동의 특성 두 가지 원인 각각에 대한 주성분 방법의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학대 행위자의 특성은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 데이터 기준으로 볼 때 총 22문항이다. 이에 대해 유사한 특성을 기반으로 요인을 도출하여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변수를 정리하였다. 학대 행위자 특성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학대행위자 특성은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양육 방법 부족 및 개인특성, 장애 및 사회적 고립, 종교문제 순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Factors Analysis of Abuse Actor Characteristics

The rotation matrix component (a)			
	component		
	1	2	3
Parenting knowledge and skills shortage	0.997	-0.028	0.03
Stress	0.99	-0.07	0.031
Couple and family conflict	0.989	-0.005	0.121
Improper rearing	0.98	-0.151	0.074
Childhood abuse	0.961	-0.09	0.171
Financial difficulties	0.954	0.272	-0.086
Spousal violence	0.933	-0.288	-0.124
Alcohol abuse	0.917	0.27	0.061
Personality and temperament problems	0.913	0.381	0.045
Gender issues	0.878	0.359	-0.154
Criminal history	0.799	0.37	0.004
No characteristics	0.798	-0.563	-0.099
Child don't want	0.792	-0.37	-0.034
Gambling addiction	0.753	-0.056	0.614
Drug abuse	0.722	0.258	0.467
Duration abuse	0.714	-0.422	0.304
Mental disability	0.019	0.938	0.292
Physical disability	0.142	0.881	0.352
Other characteristics	-0.191	0.873	-0.115
Social isolation	0.545	0.712	-0.276
Not identified	0.191	-0.235	-0.873
Religious issues	0.133	-0.002	0.735
Factors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Kaiser normalization BerryMax.			
a. 4 These factors converged in the rotating iteration.			

요인 1은 16개 항목으로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스트레스, 부부 및 가족갈등, 부적절한 양육태도, 어릴 적 학대경험 순의 적재값을 보이고 있어 “양육 방법 부족 및 개인특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4개 항목으로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기타, 사회적 고립 순의 적재값을 보이고 있어 “장애 및 사회적 고립”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2개 항목으로 파악안됨, 종교문제 순의 적재값을 보이고 있어 “종교문제”로 명명하였다.

둘째 피해아동의 특성 또한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 데이터 기준으로 볼 때 총 41문항이다. 이에 대해 유사한 특성을 기반으로 요인을 도출하여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변수를 정리하였다. 피해아동의 특성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과 같다.

<Table 2> Factors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Children Suffered Damage

The rotation matrix component (a)				
	ingredient			
	1	2	3	4
Stay out late	.968	.031	-.050	-.011
Personality and temperament problems	.960	.227	-.001	-.043
School maladjusted	.950	-.162	.244	-.051
Absenteeism	.947	.176	.154	.119
Learning problems	.937	-.269	-.076	-.027
Sexual problem	.935	.093	.226	-.110
Disappearance from home	.926	.114	.220	.076
Living habit	.916	.187	.239	.123
Sanitary problem	.914	.268	.160	.030
Distractions	.909	.186	.355	.063
Language problem	.895	.336	.213	.169
Bowel problems	.894	.199	.157	.062
Kleptomania	.889	.111	-.129	.176
Hyperactive	.845	.308	.396	.001
Gluttony and without a meal	.812	.442	.093	.049
Delay of physical development	.782	.219	-.047	.520
Internet addiction	.763	.396	.446	-.023
Drinking	.741	.402	.478	.155
Smoking	.719	.410	.520	.130
Rebellion and impulsivity, aggression	.702	.281	.644	.064
Other characteristics	.686	-.637	.074	-.221
Malnutrition	.670	.463	-.032	.489
Game addiction	.145	-.960	-.134	-.036
Acute or chronic disease	.268	-.901	-.190	.183
Interpersonal aversion	.348	.858	.336	.071
Dubious disorder	.393	.857	.318	.076
Frequent illness and infirmity	.358	.852	.337	.112
Violent behavior	.386	.852	.326	.114
Tick (voice, body)	.405	.847	.309	.078
Group delinquency behavior	.402	.838	.315	.126
Unhealthy peer relationships	.412	.838	.298	.061
Emotional problems	.042	-.224	-.952	.056
Not identified	.031	-.213	-.950	.129
Social problem	.130	-.226	-.943	.053
Helplessness	.497	.172	.818	.148
Anxiety	.526	.267	.785	.143
Depressed	.519	.290	.785	.130
Attachment problems	.508	.301	.781	.150
Low self-esteem	.521	.328	.772	.121
Major diseases and legal records	.181	-.527	-.676	-.264
Narcotics	.012	.136	.621	.675

요인분석 결과, 피해 아동의 특성은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생활 습관 및 학업, 신체적 문제 및 교우 관계, 정서적 문제, 약물 순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1은 22개 항목으로 늦은 귀가, 성격 및 기질문제, 학교 부적응, 잦은 결석, 학습 문제 순의 적재값을 보이고 있어 “생활 습관 및 학업”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9개 항목으로 오락중독, 급만성질병, 대인관계기피, 장애의심, 잦은 병치

레 및 허약 순의 적재값을 보이고 있어 “신체적 문제 및 교우관계”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9개 항목으로 정서 문제, 파악안됨, 사회성문제, 무력감, 불안, 우울 순의 적재값을 보이고 있어 “정서적 문제”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1가지인 약물만 존재하여 “약물”로 명명하였다.

셋째 고용형태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일반적으로 파견근로, 단시간 근로, 계약직, 도급, 위탁 특수고용계약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로 나누었다.

넷째 가족 구성원 간에 대한 관계만족도는 가정 내 구성원에 따라 관계만족도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어떤 만족도 요인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주는 만족도 요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만족도는 전반적 가족만족도(가정 내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로 나누었다.

3.3 가설설정

연구 설계에 따른 가설은 4개의 독립변수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설정한 뒤 조작적 정의에 의해 규정된 세부요인을 토대로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설정 기준에 의한 가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학대 행위자의 특성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학대행위자 특성 중 ‘양육 방법 미흡 및 개인특성’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학대행위자 특성 중 ‘장애 및 사회적 고립’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학대행위자 특성 중 ‘종교문제’는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피해아동의 특성은 아동학대에 영향 미칠 것이다.

가설 2-1: 피해아동특성 중 ‘생활 습관 및 학업’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피해아동특성 중 ‘신체적 문제 및 교우관계’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피해아동특성 중 ‘정서적 문제’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피해아동특성 중 ‘약물’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고용형태가 정규직일 경우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 경우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가족 구성원 간에 대한 만족도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전반적 가족만족도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3: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아동의 특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데이터를, 학대 행위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데이터를,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각 요인과 아동 학대와의 관계분석을 위해 SPSS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 수준은 0.05 이하로 설정하였다.

4. 분석 결과 및 해석

4.1 학대행위자의 특성과 아동학대의 관계 분석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 아동학대 감소에 대한 기여를 하고자하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원인의 4가지 정신 병리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 사회 환경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4가지 가설과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정신 병리적 관점에서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요인분석을 통해 언

어낸 양육 방법 부족 및 개인특성, 장애 및 사회적 고립, 종교문제 또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 1-1~1-3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Characteristics of Abuse Actors and Number of Child Abuse Cases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Note that the probability
		B	The standard error	beta		
hypothesis 1-1	Lack of parenting method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5786.607	135.272	.998	42.778	.000
hypothesis 1-2	Disability and social isolation	-152.809	135.272	-.026	-1.130	.296
hypothesis 1-3	Religious issues	120.307	135.272	.021	.889	.403

회귀 분석 결과, ‘양육 방법 미흡 및 개인 특성’은 유의 확률 0.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가설1-1(학대행위자 특성 중 ‘양육 방법 부족 및 개인특성’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된다. 다음으로 ‘장애 및 사회적 고립’은 유의확률 0.296, ‘종교문제’는 유의 확률 0.403 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가설 1-2(학대행위자 특성 중 ‘장애 및 사회적 고립’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1-3(학대행위자 특성 중 ‘종교문제’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각각 기각된다(<Table 3> 참조).

4.2 학대피해아동의 특성과 아동학대의 관계 분석

둘째, 발달론적 관점에서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낸 생활 습관 및 학업, 신체적 문제 및 교우 관계, 정서적 문제, 약물 또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 2-1~2-4를 검증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Characteristics of Children Suffered Damage and Number of Child Abuse Cases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Note that the probability
		B	The standard error	beta		
hypothesis 2-1	Lifestyle and emotional issues	1.688	0.337	0.945	5.012	.001
hypothesis 2-2	Physical problems and companionship	0.479	0.954	0.048	0.502	.628
hypothesis 2-3	Emotional problems	0.021	0.678	0.005	0.031	.976
hypothesis 2-4	Narcotics	23.686	63.269	0.021	0.374	.717

회귀분석 결과, ‘생활습관 및 학업’은 유의확률 0.001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가설2-1(아동특성 중 ‘생활 습관 및 학업’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된다. 다음으로 ‘신체적 문제 및 교우관계’는 유의확률 0.628로, ‘정서적 문제’는 유의확률 0.976으로, ‘약물’은 유의확률 0.717로 모두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가설2-2(아동특성 중 ‘신체적 문제 및 교우관계’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2-3(아동특성 중 ‘정서적 문제’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과 가설 2-4(아동특성 중 ‘약물’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각각 기각된다(<Table 4> 참조).

4.3 고용 형태와 아동학대의 관계 분석

셋째,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 3-1과 3-2를 검정하기 위해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Employment Type and Number of Child Abuse Cases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Note that the probability
		B	The standard error	beta		
hypothesis 3-1	permanent employment	-.053	.043	-.300	-1.237	.304
hypothesis 3-2	temporary employment	.352	.092	.931	3.837	.031

직업별 고용형태가 정규직일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 p 값이 0.304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가설3-1(고용형태가 정규직일 경우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기각된다.

직업별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 경우의 회귀분석 결과, p 값이 0.03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가설3-2(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 경우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된다(<Table 5> 참조).

4.4 가족 구성원 간의 만족도와 아동학대의 관계 분석

넷째,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만족도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반적 가족 관계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 4-1~4-3을 검정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Overall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Number of Child Abuse Cases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Note that the probability
	B	The standard error	beta		
Overall satisfaction	877.956	477.567	1.240	1.838	.140
Overall Average	59.065	648.514	.036	.091	.932
Overall dissatisfaction	2672.435	3352.088	.448	.797	.470

회귀분석 결과, 만족은 0.140, 보통은 0.932, 불만족은 0.470으로 모두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전반적 가족 관계만족도는 아동학대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가설4-1(전반적 가족만족도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기각된다(<Table 6> 참조).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만족은 0.091, 보통은 0.100, 불만족은 0.105로 모두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아동학대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가설4-2(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된다(<Table 7> 참조).

<Table 7>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Spouse and Number of Child Abuse Cases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Note that the probability
	B	The standard error	beta		
Spouse satisfaction	-652.262	294.768	-4.269	-2.213	.091
Usually a spouse	-1916.779	899.836	-.581	-2.130	.100
Dissatisfied spouse	-645.611	308.818	-4.046	-2.091	.105

<Table 8>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and Number of Child Abuse Cases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Note that the probability
	B	The standard error	beta		
Children satisfied	-514.531	218.929	-4.522	-2.350	.078
Usually children	-1985.821	770.635	-.604	-2.577	.062
Dissatisfied child	-509.704	224.305	-4.333	-2.272	.086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만족은 0.078, 보통은 0.062, 불만족은 0.086으로 모두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아동학대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가설4-3(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기각된다(<Table 8> 참조).

4.5 분석결과 해석과 정책적 함의

가설 검증 결과를 종합(<Table 9> 참조)하면, 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아동의 특성, 고용형태는 아동학대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대 행위자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특성은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이는 양육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피해아동의 높은 특성으로는 정서적 불안정, 생활습관, 학업 등의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은 학대의 원인이 되는 유전학적으로 형성된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을 통해서 자신의 학대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 [20]를 증명하고 있다. 즉 아동의 특성 또한 아동학대의 중요한 원인이라곤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 형태로는 비정규직 일 경우 아동학대와 유의적

인 연관성을 보인다. 이는 “과거실직경험, 이직경험, 직업 불안정, 직무요구는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요소가 비정규직이 겪는 상황”이라는 연구[21]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로 인해 높아진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Table 9> Hypothesis results

Division	Contents	Results
hypothesis 1	1. Characteristics of abusive actors will affect child abuse.	accept
	1-1. Poor parenting method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mong characteristics of abusive actors will affect child abuse.	accept
	1-2. Disability and social isolation among characteristics of abusive actors will affect child abuse.	reject
	1-3. Religious issues among characteristics of abusive actors will affect child abuse.	reject
hypothesis 2	2.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ll affect child abuse.	accept
	2-1. Lifestyle and studies attitude among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ll affect child abuse.	accept
	2-2. Physical problems and companionship attitude among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ll affect child abuse.	reject
	2-3. Emotional problems among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ll affect child abuse.	reject
	2-4. Narcotics among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ll affect child abuse.	reject
hypothesis 3	3. Employment Type(permanent, temporary) will affect child abuse.	accept
	3-1. Employment Type(permanent job) will affect child abuse.	reject
	3-2. Employment Type(temporary job) will affect child abuse.	accept
hypothesis 4	4. The satisfaction among family members will have an impact on child abuse.	reject
	4-1. The overall satisfaction among family members will have an impact on child abuse.	reject
	4-2.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spouse will have an impact on child abuse.	reject
	4-3.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will have an impact on child abuse.	reject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아동학대의 감소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기존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정신 병리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 사회 환경적인 관점 모두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원인 관점에서 특이성을 살펴보면, 정신 병리적 관점

의 경우 부모의 특성 중 양육 방법의 부족 및 개인 특성 부분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발달론적 관점에서는 아동의 특성 중 생활습관 및 학업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환경적인 관점에서는 실업뿐만 아니라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 경우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는 부모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22]. 더구나 현재의 육아,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의 특성·행동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동 학대는 이제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통한 빈곤 제거, 실직률 감소와 더불어 사회적 스트레스(특히 비정규직의 직업적 스트레스)의 해소를 통해 아동학대를 줄이도록 하는 대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아동학대 원인 이론 중 각 원인들의 일부를 모은 생태학적 관점의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올바른 훈육 방법과 같은 부모의 입장이 추가 되며 아동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은 부족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 장그래법으로 불리어지는 비정규직 대책법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 정책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법 또는 비정규직의 임금, 사회보험, 실직·이직대책 등의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함을 제안하는데 작은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분석 및 연구를 하여 학문적으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관한 요인으로부터의 상관관계를 찾고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인하여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데이터를 제공 받지 못해 공공 데이

터만을 토대로 연구가 이루어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데이터의 부족과 각 사건별로 나뉜 데이터 등으로 인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도 가지고 있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제시했던 아동학대의 원인중 하나인 경제적 문제의 경우 아동학대와 연관 지을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인과관계를 도출하지 못한 것과 각 원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원인의 요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더욱 구체적인 생태학적 모델을 완성하고 그를 통한 아동학대 감소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2015 The National Child Abuse Report", 2016.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nhancement of Child Abuse Prevention·Protection System", 2016 (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PAGE=4&topTitle=%BE%C6%B5%BF%C7%D0%B4%EB%20%BF%B9%B9%E6%20%BA%B8%C8%A3%C3%BC%B0%E8%20%B0%AD%C8%AD).
- [3] Seonhyang Lee, "A study on improvement of child abuse prevention system",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2015.
- [4] Hanbi Park, "The State of Children's Human Rights and Problems related with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4.
- [5] Yeonghui Moon,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the Protection Measures of the Abused Child", Ph.D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1.
- [6] Mihee Oh, "Study on child abuse prevention related laws in Japan and Korea",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68, pp. 359-383, 2015.
- [7] Miryeong Jang, "The types of child abuse",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9,
- [8] Sukin Park, "Educational alternatives on the causes

- and precautions of child abuse”,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p.32-33, 2007.
- [9] Deokpyo Hong, “Study on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pp.22-26, 2003.
- [10] Munsang Choi, “A Study on Factors of Child Abuse : Focused on the Cases of Child Abuse in Korea”, 2003-2004,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pp.9-16, 2004.
- [11] Changgu Kang, “The Actual Condition of Child Abuse and Its Improving Measure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p.63-64, 2003.
- [12] Sangju Park,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Child Abuse and Improvement Scheme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pp.72-74, 2005.
- [13] Jinseok Oh,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Child Abuse and Improvement Schemes in Korea”,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pp.67-68, 2011.
- [14] Sehui Park, “About improvement program of child abuse preventive policy research”,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pp.64-65, 2008.
- [15] KeunWon Kim, DongWoo Kim, Kyoo-Sung Noh and Joo-Yeoun Lee, “An Exploratory Study on Improvement Method of the Subway Congestion Based Big Data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35-42, 2015.
- [16] Kyoo-Sung Noh, Seong Taek Park and Kyung-Hye Park, “Convergence Study on Big Data Competency Reference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 3, pp. 55-63, 2015.
- [17] Kyoo-Sung Noh, “A Study on Utilization Strategy of Big Data for Local Administration by Analyzing Ca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 pp. 89-97, 2014.
- [18] Min Hyuk Yang , In-Sun Jung , Yong-Tchai Kim and Wan-Sup Cho. “An Awareness Identification and Preference Analysis for Domestic University Using SNS Data”, Korea Big Data Services Society, Vol. 1, No. 1, pp. 1-13, 2014.
- [19] Seonhui Joo, “(The) study on the ideas and recommendations to prevent child abuse”,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02.
- [20] Sunok Kang, “Study on factors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2,
- [21] SangBaek Koh, Mia Son, JungOk Kong, ChulGab Lee, SeiJin Chang and BongSuk Cha, “Job Characteristics and Psychosocial Distress of Atypical Worker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 16, No.1, pp.107-109, 2004.
- [22] Jeonhui Hong. “Realities of Child Abuse and the Counter Measure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02.

황 준 수(Hwang, Jun Soo)



- 2016년 10월 :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재학)
- 관심분야 : 빅데이터, 마케팅
- E-Mail : mevement@naver.com

임 종 윤(Lim, Jong Yun)



- 2016년 10월 :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재학)
- 관심분야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 E-Mail : vavau1993@naver.com

권 순 영(Gwon, Sun young)



- 2016년 10월 :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재학)
- 관심분야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 E-Mail : ab0682@naver.com

노 규 성(Noh, Kyoo Sung)



- 1984년 2월 : 한국외대 경영학과(경영학사)
- 1995년 8월 : 한국외대 대학원 경영정보학과(경영정보학 박사)
- 2003년 7월 ~ 2010년 2월 : 中國 延邊科學技術大學 兼職教授
- 1997년 9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비즈니스데이터과학 전공 교수

수

- 2004년 12월 ~ 현재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
- 2012년 10월 ~ 현재 :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회장
- 관심분야 : 디지털정책&스마트융합, 디지털경제민주화, 창의기반 경영혁신, 빅데이터
- E-Mail : ksnoh@sunmoon.ac.kr

이 주 연(Lee, Joo Yeoun)



- 1993년 2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전공(경영학석사)
- 2004년 2월 : 인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7년 1월 ~ 2011년 12월 : 한국산업정보학회 회장(Chairman)
- 2005년 1월 ~ 2011년 12월 : SK C&C 전략마케팅본부장(상무)

- 2011년 12월 ~ 2014년 12월 : 포스코ICT 그린사업부문장(전무)
- 2014년 9월 ~ 현재 :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수
- 2015년 1월 ~ 현재 : 산업통상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관심분야 : Business Intelligence, Smart Convergence (Smart Grid, Factory, Fin Tech, Cognitive)
- E-Mail : jooyeoun325@ajou.ac.kr